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 지수 126p, 중고선가 지수 96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6p, 중고선가 지수는 96p라고 보도됨. 현대중공업이 Latsco로부터 VLCC 2척을 수주했고 납기는 2022년까지라고 보도됨. 현대미포조선은 5만DWT급 MR탱커 1척을 수주했고 납기는 2022년까지라고 보도됨. 현대삼호중공업은 17.4만CBM급 LNG선 1+3척을 수주했고 납기는 2023년까지라고 보도됨. (Clarksons)

Crude tanker market in bloodbath as shipowners face negative returns

선박 수요 감소로 지난 15일 중동 걸프(MEG)-중국 항로의 TD3C 벤치마크 운임은 일일 3,163달러로 추락했다고 보도됨. 발틱거래소(Baltic Exchange)에 따르면, 이는 2017년 2월 처음 운임 산정을 개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1년 1월 8일 일일 10,667달러보다 70%나 하락한 수준이라고 보도됨. 그나마 PC선(석유제품운반선) 시장은 공급 과잉이지만 복원력을 발휘하여 버티는 상황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Capesize spot rates hit three-month high amid futures rally

Capesize 벌크선의 스팟(spot) 운임이 지난 10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고 보도됨. 발틱거래소(Baltic Exchange)에 따르면, TCE(The weighted time-charter equivalent) 평균 운임은 지난 주 수요일 일일 26,48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금요일 일일 23,989달러로 떨어졌다고 보도됨. (TradeWinds)

Petrobras in new tender delay for Brazil pre-salt floaters

브라질의 NOC(National Oil Company) Petrobras가 2개의 FPSO에 대한 입찰 개시일을 두번째로 연기했다고 보도됨. 2주가량 연기했으며 입찰 참여자들의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3개의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Toyo Engineering(일본)-EBR(브라질), 현대중공업-Keppel(싱가포르)-BrasFels(브라질), 대우조선해양-Saipem(이탈리아)라고 알려졌다. (Upstream)

EEXI, 신조선 발주에 큰 영향

기존 선박의 에너지효율등급지수(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ship Index)가 선주들의 친환경 선박 발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전문가들은 IMO, RightShip, Sea Cargo Charter 등이 이미 선주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더 친환경적인 선박을 원하는 용선주와 규제 당국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선박뉴스)

금년 LNG 수요 6백만톤 증가

2021년 전세계 LNG 수요는 600만톤 늘어나고 증가세는 2022년에도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미국의 LNG 생산에는 여전히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으며, 2021년 미국의 LNG 생산량은 1,000만~1,100만톤 증가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